

# 성가의 음악적 표현

## 소질과 노력

흔히 일상생활에서 음악에 소질이 없어 “음치”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음치는 자기 자신이 음치인 사실도 모른다. 예, 체능에 있어 소질이란 창의성과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다. 음악사가 곧 작곡가의 역사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창작”에 있어서는 적어도 70% 정도는 “소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축구에서 골을 잘 넣는 선수나 야구에서 홈런을 잘 치는 선수 즉, “공격수”들도 일단 소질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축구에서 골키퍼나, 야구에서 투수 등 “수비수”들은 소질보다도 노력이 중요한데, 음악에서는 바로 “감상”이 “노력”을 70% 정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창작”, “감상”과 더불어 음악 활동의 세 갈래 중 하나인 “연주”에 해당하는 노래는 소질과 노력이 각각 50%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아무리 소질이 없다고 해도 웬만한 사람이면 100점 만점에 50점은 충분히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성가를 부르는 데 있어 보다 노력을 하면 음악적 표현을 더욱 잘할 수 있을 것이다.

## 호흡은 수입과 지출

노래의 삼 요소는 “에너지”, “공명”, “부드러운 연결”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호흡”이다. “성악은 99%의 호흡과 1%의 기술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노래에 있어 호흡은 가히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일단 호흡에서 숨을 많이 들이켜야 하는데, 이는 마치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탄다거나 사업을 통해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노래하는 것은 들이킨 숨을 내뿜으면서 소리를 내는 것으로 지출에 비유할 수 있다. 일단 수입이 많아야 지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수입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지출을 무절제하게 하면 파탄이 나듯이 낭비되지 않게 절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래를 잘하기 위해 숨을 많이 들이켰다면 그 숨이 낭비되지 않게 노래로 표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가를 부를 때에 2소절을 부르고 호흡을 한다면 첫째 소절에 호흡량의 약 40%를, 둘째 소절에 60%를 사용한다거나 또, 악절이 끝날 때에 긴 음표를 등을 최대한 그 음표만큼 소리를 길게 한다거나 하여 호흡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 동기(Motive)의 이해

일반 성악곡과 마찬가지로 성가에 있어 처음의 2소절을 동기(Motive)라고 한다. 모든 노래는 이 동기에서 출발되어 다양하게 전개되는데, 16소절 정도의 짧은 성가에서도 동



배성환 루카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태성전자 기술고문



기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상생활 등에서도 중요한 말은 자주 되풀이하듯이 동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성가의 제목에서도 거의 동기에 해당하는 가사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다만 곡의 제목이 그 곡의 전부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사랑의 기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처음의 가사는 “사랑의 기쁨은”으로 시작되지만 그 다음의 가사는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라고 나와 곡 제목만 보자면 대단히 기쁜 노래 같지만 내용은 정반대인 것을 알 수 있다. 가톨릭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이나 32번 “언제나 주님과 함께” 등의 곡도 세속적인 면에서 보자면 그렇게 신나는 노래가 아니고 오히려 장례 미사나 위령 미사에 적합한 성가일 것이다. 그러므로 곡의 제목과 아울러 가사의 내용을 더욱 음미하면서 성가를 불러야 한다.

## 빠르기(Tempo)의 이해

어떤 성당에 가면 사제나 선창자들이 성가를 보다 빠르고 힘 있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성가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대체적으로 신자들이 성가를 잘 부르지 않는다거나 부르지만 맥없이 부르기 때문에 나온 말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가는 곡마다 고유의 속도를 지니고 있다. 흔히 “보통 빠르기” 또는 Moderato로 된 곡을 많이 보는데, 이러한 기준은 성인들이 걷는 속도가 1분에 약 90보 정도라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통 빠르기란 바로 걷는 정도의 속도에 가깝다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행진곡 풍의 속도란 군인들이 행진하는 속도 즉 1분에 120보 정도의 속도인데, “아주 빠르게” 또는 “Allegro”는 1분에 130~140보 정도의 속도로 행진곡보다도 더 빠르다. 신자들이 좋아하는 성가 중 283번 “순교자 찬가”가 있다. 이는 보통 빠르기보다 약간 느리며 비장하게 불러야 되는데, 다소 흥분하여 빠르고 신나게 부르는 경향도 있다. 그러므로 성가의 악보 상단 좌측에 있는

빠르기표를 이해하여 부르면 곡의 분위기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다.

## 섬세한 표현(Articulation)의 이해

“갔습니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보자면 어근인 “갔”을 더 크게 강조하고 어미인 “니다”는 점점 작게 말한다. 마찬가지로 음악에 있어서도 악구(Phrase)가 끝나면서 점점 작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말하는 것과 같이 비유할 수 있다. 얼핏 생각하면 한 자 한 자 모두 힘을 주어 말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제로는 말에도 강약과 억양이 있어야 보다 분명히 전달하듯이 노래에도 마찬가지로 강약과 억양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수는 복회와 함께 극장에 갔습니다”라는 문장에서 “복회”를 강조하면 누구를 강조하는 것이 되고 “극장”을 강조하면 어디를 강조하는 것이 된다. 같은 문장이라도 억양에 따라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욱 분명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악사전 상에는 단순히 “점점 느리게”라고 나오는 용어 “rall.”(랄렐란도)는 엄격히 말하면 표시가 잘 안날 정도로 조금만 점점 느리게이고 성가 177번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에 나오는 “rit.”(리타르단도)는 상당히 점점 느리게이며 성가 179번 “주의 사랑 전하리”, 156번 “한 말씀만 하소서” 등의 마지막에 나오는 “allarg.”(알라르간도)는 점점 느리면서도 소리를 크게 마치는 것이다. 끝으로 모든 성가에는 절정(클라이맥스)이 있다는 점이다. 대체적으로는 곡의 중, 후반에 있는데 이를 더욱 살려 부르면 곡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